

# I 3 문명의 발생과 4대 문명

## 01. 문명

|               |   |
|---------------|---|
| <b>문명의 발생</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사용, 농경 생산력 향상, 인구 증가</li> <li>• 큰 강가 유역에서 관개 농업 발달 : 치수를 위한 노동력 필요 → 계급 분화, ②□□ 사용</li> <li>• 지배자의 권력 강화와 도시 국가 형성</li> </ul> |
|---------------|---|

## 02.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                  |   |
|------------------|---|
| <b>메소포타미아 문명</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원전 3,500년 경</li> <li>•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li> <li>• 이민족의 침입 빈번, 왕조의 잦은 교체(⑤□□□ → 아카드 → ④□□□ → 히타이트)</li> <li>• 정치 : 신정(신권) 정치</li> <li>• 종교 : ⑤□□□ 다신교(⑥□□□□ □□□)</li> <li>• 문화 : ⑦□□□□ 건설, ⑧□□ 문자(점토판), ⑨□□진법과 □□□, 점성술 발달</li> <li>• 바빌로니아 왕국 : ⑩□□□□ 법전 편찬</li> </ul> |
| <b>이집트 문명</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원전 3,000년 경</li> <li>• ⑪□□□ 유역 : 강의 주기적 범람으로 땅이 비옥</li> <li>• 폐쇄적인 지형 특성으로 오랫동안 통일 왕국 지속[고왕국(멤피스) → 중왕국(테베) → 신왕국(아마르나)]</li> <li>• 정치 : ⑫□□□의 신정(신왕) 정치</li> <li>• 종교 : ⑬□□□ 다신교(미라, ⑭□□□ □)</li> <li>• 문화 :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건설, 상형 문자를 ⑮□□□□에 기록, ⑯□□진법과 □□□, 기하학과 측량술 발달</li> </ul>  |

## 03.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

|             |  |
|-------------|--|
| 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제 무기와 전차를 이용한 정복 활동</li> <li>• 바빌로니아 왕국 멸망, 철기 문화를 서아시아에 전파</li> </ul>                                   |
| 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중해와 흑해를 무대로 해상무역 주도</li> <li>• 카르타고 등 해상 식민 도시 건설</li> <li>• 표음 문자 사용 : 그리스에 전해져 알파벳의 기원이 됨</li> </ul>   |
| <b>헤브라이</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스라엘 왕국 : 솔로몬 왕 때 전성기 → 솔로몬 왕 사후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열</li> <li>• ⑲□□□ 숭배 사상과 유대교의 발전 : 크리스토포, 이슬람교에 영향</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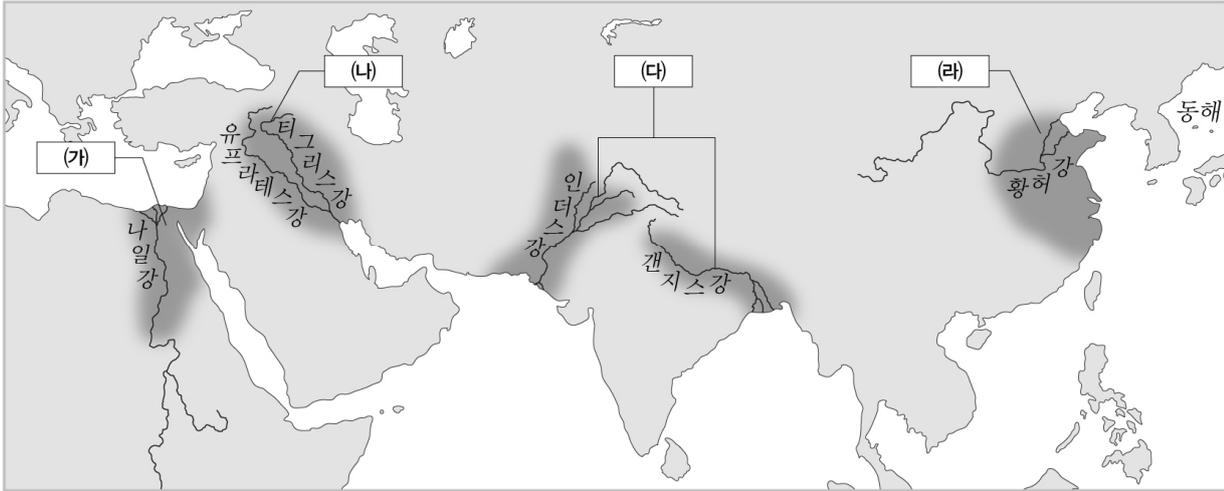
## 04. 인도 문명

|                 |  |
|-----------------|--|
| <b>인더스 문명</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원전 2,500년 경</li> <li>• 인더스강 유역, 드라비다인 건설 추정</li> <li>• ⑳□□□□와 □□□□□ 유적 : 계획도시 건설(포장도로, 배수 시설, 공중목욕탕, 광장, 창고 등을 갖춘)</li> <li>• 상형 문자, ㉑□□ 사용, 해상무역 종사(일찍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교역)</li> </ul> |
| <b>아리아인의 이동</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 경로 : 기원전 1,500년 경 펀자브 지방 → 기원전 1,000년 경 갠지스강 유역까지 진출</li> <li>• ㉒□□□□ 확립 : 엄격한 신분 제도(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li> <li>• 브라만교의 창시 : ㉓□□ 제작(자연에 관한 찬양과 제사 의식 정리)</li> </ul>          |

05. 중국 문명

|             |   |
|-------------|---|
| <b>하 왕조</b> | • 청동기, 기록상 최초의 왕조, 얼리티우 유적  |
| <b>상 왕조</b> | • 기원전 1,600년 경 황허강 중류에서 성립<br>• 제정일치의 신정(신권) 정치, 은허 유적, ㉔□□□, 태음력   |
| <b>주 왕조</b> | • 기원전 1,046년경 상을 무너뜨리고 호경(鎬京, 산시성 시안 부근)에 도읍<br>• ㉕□□□ 실시 : 왕이 직할지를 직접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은 친족과 공신에게 봉토를 분배하여 통치<br>• 천명사상과 덕치 강조, 종법(혈연적 질서)과 예법 중시, 경제(㉖□□□)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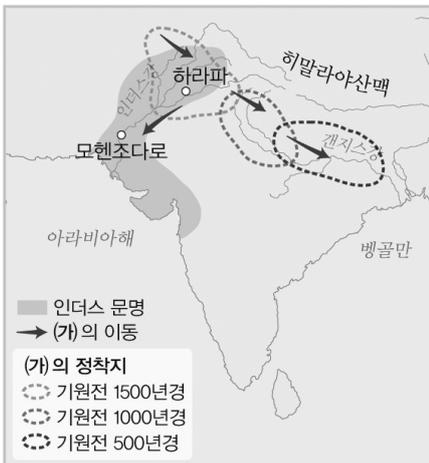
4대 문명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



(가)의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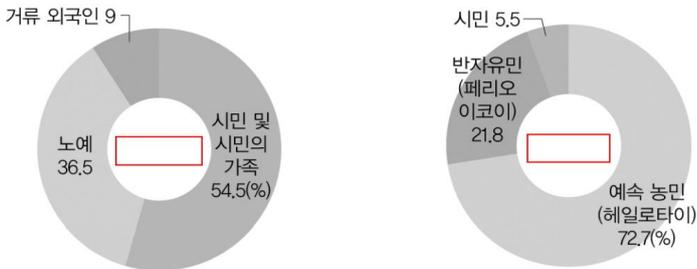


# IV 1 고대 지중해 세계

## 01. 그리스 세계의 성립과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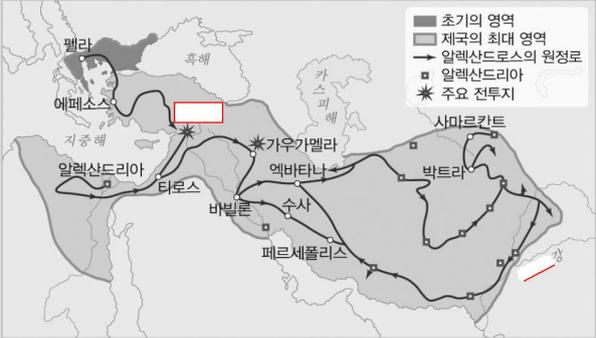
|                      |   |
|----------------------|---|
| <b>폴리스의 성립</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원전 10세기경 형성 : 복잡한 해안선, 많은 산지 → 통일 국가 형성이 어려움</li> <li>구조 : ①□□□□□□(종교와 군사의 거점), 아고라(광장, 정치와 경제의 거점)</li> <li>강한 동족 의식 형성 : 헬레네스로 다른 민족과 구분, ②□□□□ 제전 개최</li> </ul>  |
| ③□□□□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치 발전 : 왕정 → 귀족정 → ④□□□□</li> <li>솔론 : 귀족정 시기 평민의 성장(중장보병의 핵심, 경제력 증가) → ⑤□□□에 따른 참정권 차등 분배</li> <li>페이시스트라토스 : 참주 정치</li> <li>⑥□□□□□□□□ : 부족제 개편, 500인 평의회 구성, ⑦□□□□□□ 마련</li> </ul>                              |
| ⑧□□□□□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리스인이 원주민 정복하여 성립 : 시민 소수, ⑨□□□□□□(국유 노예)와 □□□□□□(반자유민)</li> <li>군국주의적 귀족 정치 : 군사 제도를 바탕으로 둔 엄격하고 폐쇄적인 사회</li> </ul>   |
| <b>그리스·페르시아 전쟁</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원전 492~기원전 479</li> <li>세 차례 전쟁에서 그리스가 ⑩□□□□□□ 왕조 페르시아 격퇴 : 마라톤 전투, 테르모필레 전투, 살라미스 해전, 플라타이아이 전투 등</li> <li>전쟁 이후 아테네의 성장 : ⑪□□□□□□의 맹주</li> <li>⑫□□□□□□ 시대 : 아테네 민주 정치의 전성기(민회가 입법권 행사, 공직자 수당제와 추천제)</li> </ul> |
| ⑬□□□□□□<br><b>전쟁</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원전 431~기원전 404</li> <li>아테네 주도의 동맹과 스파르타 주도 동맹의 충돌 : 그리스 폴리스 내부의 분열</li> <li>스파르타가 패권 장악, 이후 그리스 세계 내분 → ⑭□□□□□□에 정복됨</li> </ul>  |
| <b>문화</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리적, 인간 중심적인 문화</li> <li>미술 : 조화와 균형의 미 중시, ⑮□□□□□□ 건축(기원전 438년), 아테네 여신상</li> <li>역사 :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li> <li>철학 : ⑯□□□□□□(수사학, 변론), 소크라테스(절대적 진리) → 플라톤 → 아리스토텔레스</li> </ul>                                      |

### ▶ 폴리스의 비교(빅터 에렌버그, 『그리스 국가』)



# IV 1 고대 지중해 세계

## 01. 알렉산드로스 제국

|                        |   |
|------------------------|---|
| <p><b>성립과 발전</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리포스 2세의 폴리스 세계 장악</li> <li>알렉산드로스의 ①□□□□</li> <li>: ②□□□ 전투, 가우가멜라 전투 승리 → ③□□□□□ 왕조 페르시아 정복</li> <li>: ④□□□강 유역까지 진출 →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친 대제국 건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서 융합 정책 : 페르시아의 전제군주제 수용, 피정복민의 전통과 관습 존중, 정복지에 ⑤□□□□□□□□ 건설,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의 결혼 장려</li> </ul> |
| <p><b>⑥□□□□ 문화</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 융합 → 개방적, 세계 시민주의</li> <li>개인주의적 철학 발달 : 스토아학파(금욕주의), 에피쿠로스학파(마음의 안정과 만족 추구)</li> <li>자연 과학 발전</li> <li>: 물리학(아르키메데스, 부력의 원리), 수학(에우클레이데스의 기하학), 태양중심설(아리스타르코스)</li> <li>예술 : 「밀로의 비너스상」, 「라오콘 군상」 등</li> <li>⑦□□□ 미술 성립에 영향</li> </ul>  |

## 02. 로마의 성립과 발전

|                                 |   |
|---------------------------------|---|
| <p><b>공화정의 발전 (BC.509~)</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민의 지위 신장(기원전 5세기 ~ 3세기)</li> <li>: ⑧□□□ 설치, 평민회 조직</li> <li>: ⑨□□□법 → ⑩□□□□법(집정관 중 1인 평민 선출) → ⑪□□□□□법(법률상 귀족·평민 동등)</li> <li>이탈리아반도 통일(기원전 272)</li> <li>⑫□□□ 전쟁(기원전 264~기원전 146)</li> <li>: 로마와 ⑬□□□□의 세 차례에 걸친 충돌 → 로마 승리, ⑭□□□□ 패권 장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⑮□□□□□(대농장) 경영과 자영농의 몰락</li> <li>⑯□□□□ □□의 개혁 : 농지법과 곡물법</li> <li>스파르타쿠스의 난(기원전 73~기원전 71)</li> <li>삼두 정치(기원전 60~기원전 31)</li> <li>: 1차(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li> <li>: 2차(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 기원전 31년 옥타비아누스의 ⑰□□□□ 해전 승리</li> <li>카레 전투(기원전 53) → ⑱□□□□와 충돌</li> </ul>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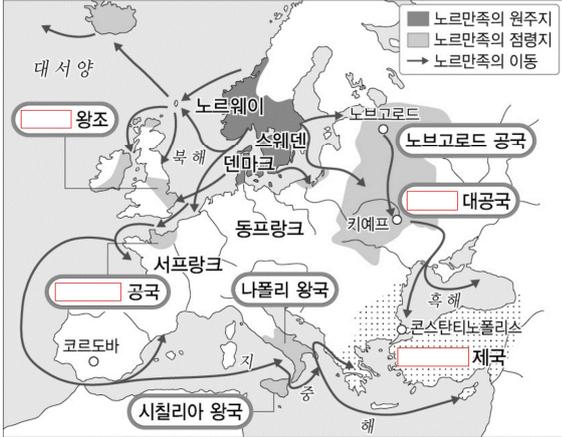
|                              |   |
|------------------------------|---|
| <p><b>제정의<br/>수립과 변화</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타비아누스의 16□□□□ 자처 → 원로원이 아우구스투스 칭호 부여 → 사실상 제정 시작</li> <li>• 로마의 평화 시대(기원전 27~기원후 180) : 제정 시작 ~ 5현제 시대(96~180)</li> <li>• 군인 황제 시대(235~2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르만족이나 21□□ 왕조 페르시아 등 이민족 침입</li> <li>: 속주의 반란이나 독립으로 농경지와 노예 감소 → 24□□□□□□ 제도 성행</li> </ul> </li> <li>• 중흥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 황제(재위 284~305, 전제군주제 확립, 4분 통치)</li> <li>: 26□□□□□□□□ 대제(재위 306~337, 28□□□□ □□ 이후 크리스트교 공인, 26□□□□□□□□ 천도)</li> <li>: 26□□□□□□□□ 황제(재위 379~395, 테살로니카 칙령 반포 이후 크리스트교 27□□□□)</li> </ul> </li> <li>• 로마의 분열 → 서로마(395~476), 동로마(395~1453)</li> </ul> |
| <p><b>문화</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8□□□□ 분야 발달</li> <li>• 법 : 12표법 → 시민법 → 만민법</li> <li>• 건축 : 도로 건설, 26□□□□(원형 경기장), 판테온 신전, 개선문 등</li> <li>• 철학 : 스토아철학이 상류층에서 유행</li> <li>• 천문학 : 프톨레마이오스(천동설)</li> </ul>   |

# IV 2 유럽 세계의 형성과 동요

## 01. 프랑크 왕국의 발전

|                        |   |
|------------------------|---|
| <p><b>게르만족의 이동</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 증가, 로마 제국 약화, 훈족의 압박 속에서 대규모 이동</li> <li>서고트 왕국, ❶□□□□(카르타고 점령, 435~534), 프랑크 왕국(481~987), 동고트 왕국(이탈리아 왕국, 493~553) 등 성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게르만족 용병 오도아케르에 의해 ❷□□□ 제국 멸망</li> </ul>  |
| <p><b>프랑크 왕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메로베우스 왕조(481~7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❸□□□□(재위 481~511, 왕조 개창, 로마 가톨릭교로 개종)</li> <li>❹□□□□ □□□□[궁재(宮宰), ❹□□□□□□□□ 전투에서 우마이야 왕조 격퇴(732)] → 서유럽 보호</li> </ul> </li> <li>카롤루스 왕조(751~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❺□□(재위 751~768, 킬데리쿠스 3세를 폐위하고 왕조 개창, 라벤나 지역을 교황청에 기증)</li> <li>❻□□□□ 대체[재위 768~814, 서로마 황제 대관(800), 문예 부흥 노력과 ❸□□□□ □□□□]</li> <li>❼□□□□ 조약(843), ❽□□□□ 조약(870)</li> <li>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로 분열 →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의 기원</li> </ul> </li> </ul> |

2. 서유럽 봉건 사회의 성립

|                         |  |
|-------------------------|--|
| <p><b>봉건제의 형성</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세기 말 노르만족의 대이동 → 서유럽 봉건 사회의 형성 촉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봉건제의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주군과 봉신의 쌍무적 계약관계, 봉신의 불입권 인정 → 지방 분권화 촉진)</li> <li>장원제(영주 직영지와 농노 보유지, ②□□□ 경작 방식)</li> </ul> </li> <li>③□□(일하는 자, 영주의 지배를 받는 예속 농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혼 가능, 재산 소유, 부역과 공납의 의무, 영주의 시설 이용료 납부, 거주 이전의 자유 없음</li> </ul> </li> </ul> |
| <p><b>봉건 국가의 발전</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프랑크(카페 왕조 개창, 987), 동프랑크(오토 1세가 신성 로마 황제 대관, 962), ④□□□ 왕조 개창(노르망디 공국의 윌리엄이 잉글랜드 정복, 1066)</li> </ul>  |

3. 크리스티교 세계의 성립과 발전

|                         |  |
|-------------------------|--|
| <p><b>크리스티교의 발전</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직 계서제(봉건적 주종 관계 형성) : 교황 → 대주교 → 주교 → 교구 성직자(사제)</li> <li>레오 3세의 ⑤□□ □□□(726) : 서로마 교회에 대한 ⑥□□□□ 제국 황제의 지배권 강화 의도</li> <li>동서 교회의 분열(1054) : 로마 가톨릭교회, ⑦□□□ □□□(정교일치의 황제 교황주의)</li> <li>교회 개혁 운동(10세기) : 교회의 세속화 → 클뤼니 수도원 중심</li> <li>⑧□□□□ □□(10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⑨□□□ □□□을 두고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히 4세의 대립</li> </ul> </li> <li>⑩□□□ □□(1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황 칼리스투스 2세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히 4세 → 교회법에 따른 성직자 임명</li> </ul> </li> <li>인노켄티우스 3세(재위 1198~1216) 때 교황권 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4차 십자군 전쟁(1202~1204), 존왕 파문(1209), '교황은 태양 황제는 달'</li> </ul> </li> </ul> |
|-------------------------|--|

4. 서유럽 봉건 사회의 문화

|                  |  |
|------------------|--|
| <p><b>특징</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크리스티교 중심의 문화</li> <li>⑪□□□ 철학 : 신앙과 이성의 조화 추구,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의 『신학대전』(1267)</li> <li>대학 : 종합적 성격으로 자치 운영, 파리 대학(신학, 교수 조합)·볼로냐 대학(법학, 학생 조합)</li> <li>로마네스크 양식(11세기) : 돔과 원형의 아치, 피사 성당</li> <li>고딕 양식(12세기) : 첨탑, 스테인드글라스, 샤르트르 대성당·노르트담 대성당·켈른 성당 등</li> <li>기사도 문학 : 『니벨룽겐의 노래』, 『아서왕 이야기』, 『롤랑의 노래』</li> </ul> |
|------------------|--|

# IV 2 유럽 세계의 형성과 동요

## 01. 비잔티움 제국

|           |  |
|-----------|--|
| <b>특징</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정교일치)</li> <li>• 수도 ②□□□□□□□□ → 동서 교통의 중심지로 번영</li> </ul>  |
| <b>변천</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③□□□□□□□□ 황제(재위 527~565)</li> <li>• : 전성기, 북아프리카 진출[반달 왕국(, 435~534) 정복], 이탈리아 장악[동고트 왕국(493~553) 정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마법 대전』 편찬, 성 소피아(아야 소피아) 성당 건립(537)</li> <li>• 이라클리오스 황제(재위 610~641)</li> <li>• :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전쟁에 대비하여 ④□□ 설치</li> <li>↳ 31개의 군관구, 황제가 임명한 스트라테고스(사령관)가 군사·행정·사법권 행사</li> <li>• : 둔전병제(屯田兵制, colonial militia) 시행</li> <li>• 사산 왕조 페르시아(224~651)와 이슬람 세력의 침입으로 시리아, 이집트 상실</li> <li>• : 야르무크 전투(비잔티움 제국·사산 왕조 페르시아 연합 ↔ 칼리프 우마르 휘하의 군대, 636)</li> <li>• 11세기 ⑤□□□ □□□ 침입</li> <li>• : 알렉시우스 1세(재위 1081~1118)가 서유럽에 파병 요청 → 십자군 전쟁 발발(1096)</li> <li>• 제4차 십자군 전쟁(1202~1204) 당시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 → ⑥□□ 제국 건설(1204~1261)</li> <li>• ⑦□□□ 제국의 메(흐)메트 2세에 의해 멸망(1453)</li> </ul> |
| <b>문화</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징 : 그리스어(공용어), 그리스 정교 + 그리스·로마 문화 + ⑧□□□□ 문화 → 독자적 문화 발전</li> <li>• 비잔티움 양식 : 웅장한 돔, 모자이크화 발달, ⑨□□ □□□ 성당</li> <li>• 영향</li> <li>• : ⑩□□□ 문화(러시아·동유럽 문화)의 발전</li> <li>• : 키예프 공국의 성장[그리스 정교 국교화, 성 소피아 대성당(키이우) 건립]</li> </ul>   |

## 02. 봉건 사회의 변화

|                |   |
|----------------|---|
| <b>⑪□□□ 전쟁</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경</li> <li>• : 셀주크 튀르크의 예루살렘 점령(1071) → 성지 순례 박해</li> <li>• : 셀주크 튀르크의 비잔티움 제국 압박 → 비잔티움 황제의 도움 요청</li> <li>• : 교황 우르바누스 2세의 ⑫□□□□ 공의회 소집(1095)과 성지 회복 호소</li> <li>• 전개</li> <li>• : 국왕, 제후, 상인, 농민 등 참여</li> <li>• : ⑬□□□ 십자군[1096~1099, 성지 탈환 성공, ⑭□□□□ 왕국 건설(성모 수호자 고트프루아)]</li> <li>• : 제3차 십자군[1189~1192, 아이유브 왕조의 살라딘 ↔ 영국의 리처드 1세, 평화 협정 체결]</li> <li>• : ⑮□□□ 십자군[1202~1204, 베네치아 상인 개입, 콘스탄티노폴리스 점령 → ⑯□□ 제국 건설]</li> <li>• 영향</li> <li>• : ⑰□□□ 약화, 제후와 기사 몰락, 왕권 강화, ⑱□□ □□ 활성화, 서유럽의 문화 자극</li> </ul> |
|----------------|---|

|                  |  |
|------------------|--|
| <p>11 □□□ 전쟁</p> |  |
|------------------|--|

|               |   |
|---------------|---|
| <p>교역의 확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거리 교역과 11□□□□ 발달</li> <li>• 지중해 무역권(이탈리아의 베네치아·피렌체 등), 상파뉴 지방(정기시 발달, 지중해와 북유럽 연결), 북유럽 무역권(뤼베크, 함부르크 등의 도시가 참여하여 12□□□□ 결성)</li> </ul> |
|---------------|---|

|               |   |
|---------------|---|
| <p>도시의 성장</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권 획득<br/>: 도시민들이 재력 또는 무력으로 특허장을 획득하여 자치권 행사 → 독자적으로 도시 행정 운영</li> <li>• 길드 조직<br/>: 도시의 상공업자들이 이익과 안전을 위해 조직, 생산과 상업 활동 통제(상인 길드, 수공업자 길드)</li> </ul> |
|---------------|---|

|                |   |
|----------------|---|
| <p>장원제의 해체</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경<br/>: 화폐 경제 발달 → 영주가 농노에게 부역 대신 현물·화폐 지대 요구 → 농노의 지위 향상</li> <li>• 12□□□□의 유행 → 노동력 감소 → 농노의 처우 개선</li> <li>• 농노 해방과 자영 농민 증가 → 장원 점차 해체</li> <li>• 농민봉기<br/>: 일부 영주들의 속박 강화, 12□□□□ 전쟁으로 인한 과도한 증세</li> <li>• 13□□□□의 난(프랑스, 1358), 14□□□□의 난(영국, 1381)</li> </ul> |
|----------------|---|

|                |  |
|----------------|--|
| <p>교황권의 쇠퇴</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경 :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교황의 권위 약화</li> <li>• 13□□□□ □□(1309~1377)<br/>: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로 프랑스 왕 필리프 4세와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가 대립 → 최초 삼부회 소집(1302) → 필리프 4세가 교황을 굴복시킴(아나니 사건) → 교황청이 14□□□□으로 옮겨짐</li> <li>• 교회의 대분열(14□□□□~□□□□) : 로마와 아비뇽에서 각각 교황이 선출되어 대립</li> <li>• 교회 개혁의 움직임 : 위클리프, 후스의 교회 비판(『성서』에 기반을 둔 신앙 강조)</li> <li>• 14□□□□ 공의회(1414~1418)<br/>: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규정, 후스 화형, 새로운 단일 교황 선출(로마 교황의 정통성 인정)</li> </ul>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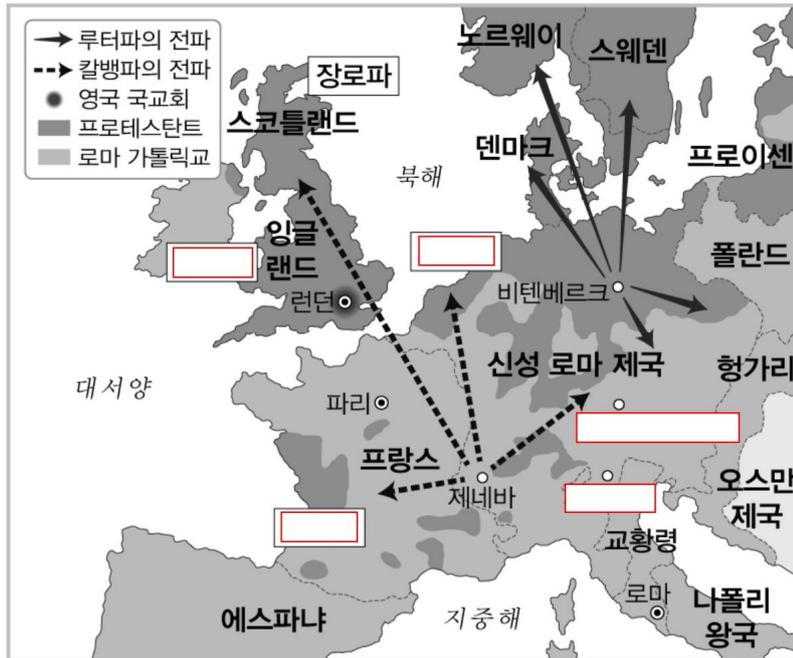
|                  |   |
|------------------|---|
| <b>왕권의 강화</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건 영주의 세력 약화, 교황권 쇠퇴, 도시 상공업자들의 성장</li> <li>• 국왕이 상비군과 관료 양성, 사법권과 과세권 확대</li> </ul>   |
| <b>유럽 각국의 변화</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존왕의 ㉔□□□ 승인(1215)</li> <li>: ㉕□□ 전쟁(1337~1453) → 장미 전쟁(1455~1485) →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li> </ul> </li> <li>•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리프 2세의 왕권 강화 → ㉖□□ 전쟁(잔 다르크의 활약 등으로 승리) →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li> </ul> </li> <li>• 독일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㉗□□ □□ □□ 황제의 명목상 통치, 제후의 강력한 세력 유지</li> </ul> </li> <li>• 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황령, 베네치아·피렌체 등 도시 국가, 나폴리 왕국 등으로 분열</li> </ul> </li> <li>• 이베리아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복 운동 과정에서 아라곤과 카스티야 성립 → 에스파냐 왕국 탄생(1469) → 이슬람의 근거지인 ㉙□□□□ 정복(1492)</li> <li>: 카스티야로부터 독립한 ㉚□□□□의 성장</li> </ul> </li> </ul> |

### 03.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

|              |  |
|--------------|--|
| <b>르네상스</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미 : 14~16세기에 전개된 그리스·로마 고전 문화 부흥 운동, '부활'·'재생'을 의미</li> <li>• ㉛□□□□의 르네상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옛 로마 제국의 중심지로 고전 문화의 전통 존중, ㉜□□□□ 제국의 많은 학자 유입, ㉝□□□□ 무역으로 부유해진 상인·군주들이 문예 활동 장려</li> <li>: 그리스·로마의 고전 작품 연구, 인문주의(휴머니즘) 및 예술 분야 발달</li> <li>: 인문주의자[페트라르카(서정시), ㉞□□□□(『데카메론』), 마키아벨리(『군주론』)]</li> <li>: 보티첼리(비너스의 탄생), 레오나르도 다빈치(모나리자), 미켈란젤로(다비드상), 라파엘로(아테네 학당)</li> </ul> </li> <li>• ㉟□□□□ 이북의 르네상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실 사회와 교회 비판, 초기 크리스티교로 돌아갈 것을 주장 → ㊱□□□□에 영향</li> <li>: 인문주의자[㊲□□□□□(『우신예찬』), 토머스 모어(『유토피아』)]</li> <li>: 반에이크 형제(유화 기법 개발), 브뤼헬(서민의 생활 모습 표현) 등</li> <li>: ㊳□□□□ 발달[세르반테스(『돈키호테』), 셰익스피어(『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등)]</li> </ul> </li> <li>• 과학 기술의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르네상스 시대의 관찰과 탐구 정신, 중국에서 전래된 과학 기술의 개량</li> <li>: 화학(봉건 기사의 몰락 촉진), ㊴□□□(원거리 항해에 이용, 유럽 세계의 팽창에 기여), 구텐베르크의 ㊵□□□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의 확산에 기여)</li> </ul> </li> </ul> |
| <b>종교 개혁</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㊶□□□의 종교 개혁(15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의 증축 비용 마련을 위해 ㊷□□□ 판매</li> <li>: 신앙과 신의 은총에 의한 구원, 신앙의 근거는 『성서』(성서 지상주의)</li> <li>: ㊸□□□의 「95개조 반박문」 제시 → ㊹□□□파와 로마 가톨릭교회의 대립</li> <li>: ㊺□□□□□□□□ 회의(1555, ㊻□□□파 인정)</li> </ul> </li> <li>• ㊼□□□의 종교 개혁(15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정설 주장, 근면하고 검소한 작업 생활 강조</li> <li>: 신흥 상공업자의 호응 → 영국(청교도), ㊽□□□(위그노), 네덜란드(㊾□□□□) 등지로 전파</li> </ul> </li> <li>• 영국의 종교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헨리 8세가 자신의 이혼 문제를 계기로 교황과 대립 → 종교적이기보다는 정치·경제적 동기</li> <li>: 수장법을 통해 국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임을 선포(㊿□□□□□) → 수도원 해산, 교회 토지·재산 몰수</li> <li>: ㊽□□□□□□ 1세의 통일법 반포(1559) → 영국 국교회 확립</li> <li>: 교리는 신교, 의식은 구교에 가까움</li> </ul> </li> </ul>  |

|              |   |
|--------------|---|
| <b>종교 개혁</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수회 설립(1534)<br/>: 에스파냐의 로올라가 설립, 아시아·아프리카·아메리카에서 선교 활동 전개</li> <li>• 로마 가톨릭교회의 대응<br/>: 공의회[1545~1563, 교황과 교회의 권위 재확인, 폐단 시정 노력, 예수회 승인, 교회 내부의 결속강화(종교 재판소 설치, 금서 목록 작성 등)]</li> </ul>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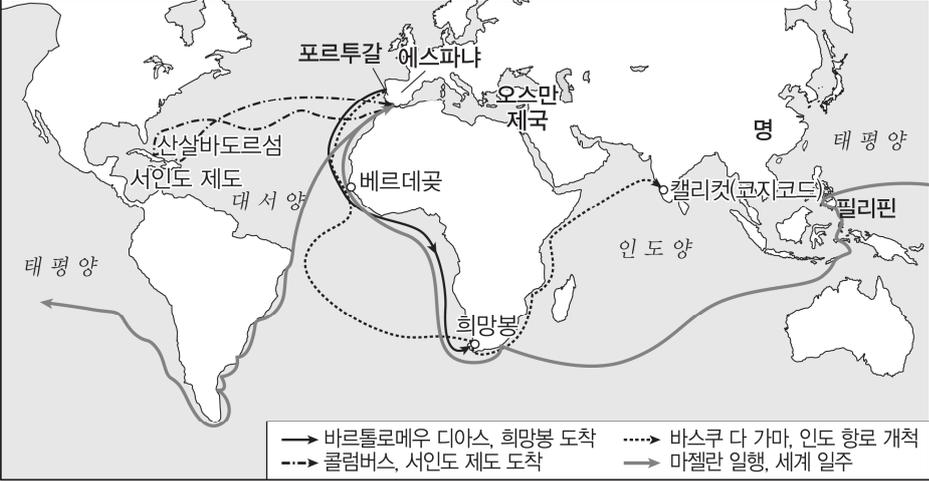
|              |  |
|--------------|--|
| <b>종교 전쟁</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경 : 종교 개혁으로 프로테스탄트(신교)와 로마 가톨릭교(구교)의 대립 격화</li> <li>• 독립 전쟁(1568~1648)<br/>: 신교도(고이센)를 중심으로 에스파냐와 전쟁 → 독립 달성</li> <li>• 프랑스 위그노 전쟁(1562~1598)<br/>: 앙리 4세의 칙령(1598, 위그노에게 신앙의 자유를 부분 허용)</li> <li>• 독일 지역 전쟁(1618~1648)<br/>: 국제 전쟁으로 확대 → 조약 체결(1648, 인정, 독립 승인)</li> </ul> |
|--------------|--|



# IV 3 유럽 세계의 변화

## 1 신항로 개척

### 01. 신항로 개척의 배경과 과정

|                          |  |
|--------------------------|--|
| <p><b>신항로 개척의 배경</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방에 관한 관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 호기심 자극</li> <li>: 동방 산물(향신료, 비단 등)에 대한 욕구 증대</li> </ul> </li> <li>• 1□□□ 제국의 동서 무역 주도로 인해 동방과의 직거래를 위한 새로운 무역로 필요</li> <li>• 조선술과 항해 도구(나침반 사용) 등 기술의 발달 → 원양 항해 가능</li> </ul>   |
| <p><b>유럽의 신항로 개척</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도 : 포르투갈과 에스파냐(2□□□ 진출에 유리한 지역에 위치하여 신항로 개척 주도)</li> <li>• 3□□□□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르톨로메우 디아스(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 도착, 1488)</li> <li>: 4□□□ □ □□(인도 항로 개척, 1498)</li> </ul> </li> <li>• 5□□□□의 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콜럼버스(아메리카 대륙의 서인도 제도 도착, 1492), 마젤란(그의 일행이 세계 일주 성공, 1522)</li> </ul> </li> </ul>  <p>▲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의 신항로 개척</p> |

### 02. 아메리카 문명의 파괴와 변화

|                           |  |
|---------------------------|--|
| <p><b>아메리카 문명의 파괴</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 문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멕시코고원 일대, 테노치티틀란(수도), 그림 문자 사용, 피라미드식 신전 건설</li> <li>: 7□□□□ 코르테스의 침략으로 파괴(1526)</li> </ul> </li> <li>• 8□□□□ 문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데스 고원 일대, 쿠스코(수도)에 거대한 태양 신전 건설, 새끼줄 매듭(키푸)으로 정보 교환</li> <li>: 7□□□□ 피사로의 침략으로 파괴(1533)</li> </ul> </li> </ul>   |
| <p><b>아메리카의 변화</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르데시야스 조약(14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남아메리카 분할</li> </ul> </li> <li>• 수탈 및 전염병 등으로 원주민의 수 급감</li> <li>• 유럽인의 대농장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탕수수 and 담배 등 재배</li> <li>: 원주민의 강제 노동 및 아프리카인의 노예 노동 이용</li> </ul> </li> <li>• 7□□□□의 광산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토시 은광(1545), 사카테카스 은광(1546)</li> <li>: 9□□□□를 통해 은이 유럽과 아시아 등지로 이동</li> </ul> </li> </ul>  |

03. 유럽 교역망의 확대

|                           |  |
|---------------------------|--|
| <p><b>교역망의 확대</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중해에서 점차 ①□□□으로 확대</li> </ul>   |
| <p><b>세계적 교역망의 형성</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각 무역을 중심으로 한 ②□□□ 교역의 발달 → ③□□□□ 성행</li> <li>• ④□□□ 교역을 통해 아메리카의 은이라는 결제 수단을 갖춘 유럽인의 아시아 진출</li> </ul>   |
| <p><b>유럽의 변화</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 은 등 귀금속의 유럽 유입 → 유럽 물가 급등(가격 혁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의 경제 성장(상업 혁명) →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li> </ul> |

# IV 3 유럽 세계의 변화

## 2 절대왕정

### 01. 성립 과정과 기반

|              |   |
|--------------|---|
| <b>성립 과정</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18세기에 유럽 각국의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 체제 발전 과정에서 등장</li> <li>중세 봉건 국가에서 근대 국민 국가로 가는 과도기에 성립</li> </ul> |
| <b>기반</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왕을 중심으로 관료제와 ①□□□ 정비, ②□□□□□ 유행, ③□□□□ 경제 정책 실시</li> </ul>                                    |

### 02. 서유럽의 절대왕정

|             |   |
|-------------|---|
| <b>에스파냐</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펠리페 2세(재위 1556~1598)</li> <li>: 대서양 무역 장악, ④□□□ 해전(1571)에서 ⑤□□□ 제국을 격파하는 등 성장</li> <li>: ⑥□□□에 무적함대 패배(1588), 가톨릭 강요 정책(⑦□□□□ 독립 초래) 등으로 국력 쇠퇴</li> </ul>  |
| <b>네덜란드</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인도 회사 설립(1602), 플라카 점령(from ⑧□□□□, 1641)</li> <li>⑨□□□□□ 조약으로 독립 승인(1648)</li> </ul>  |
| <b>영국</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⑩□□□□□ 1세(재위 1558~1603)</li> <li>: 영국 국교회 확립(⑪□□□□ 반포, 1559), 에스파냐의 무적함대 격파, 동인도 회사 설립(1600)</li> </ul>  |
| <b>프랑스</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앙리 4세(재위 1589~1610)</li> <li>: 부르봉 왕조 개창, ⑫□□ 칙령 반포(1589), 동인도 회사 설립(1604)</li> <li>루이 14세(재위 1643~1715)</li> <li>: '태양왕' 자처, 중상주의 정책 강화(⑬□□□□ 등용), ⑭□□□□ 궁전 건축(바로크 양식)</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ue; padding: 5px; margin: 5px 0;"> <p>왕궁의 건설은 막대한 인력과 돈을 필요로 하였다. 약 4만 명의 근로자가 동원되었고, 이들을 위한 숙소와 식사가 준비되었다. 다리, 팔 또는 허리를 다쳤을 때는 30에서 40리브르 그리고 눈을 다쳤을 때는 60리브르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마침내 왕궁이 파리에서 베르사유로 이전하였다. 수많은 건물이 만들어졌지만 궁정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비좁은 공간에 부족한 개수의 방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 이들은 가까이에서 국왕을 모시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더 많은 방이나 더 넓은 방을 청탁하곤 하였다. 단 한 사람, 루이 14세만이 마음대로 베르사유의 정원, 건물, 공간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⑮□□ 칙령 폐지(퐁텐블로 칙령, 1685)로 인한 위그노의 망명 증가 → 국내 산업 위축</li> <li>: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1701~1713) 등 무리한 전쟁으로 재정난 심화</li> </ul> |

### 03. 동유럽의 절대왕정

|              |  |
|--------------|--|
| <b>특징</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와 상공업 발달이 부진하여 시민 계급 성장 미약, ⑯□□□ 강화</li> </ul>  |
| <b>프로이센</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리드리히 2세(재위 1740~1786)</li> <li>: '국가 제일의 공복'(⑰□□ 전제 군주) 자처, 산업 장려, ⑱□□□ 궁전 건축(로코코 양식)</li> <li>: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끝에 ⑲□□□□ 차지, 러시아·오스트리아와 함께 ⑳□□□□ 분할 점령(1772)</li> </ul>  |
| <b>오스트리아</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제프 2세(재위 1765~1790)</li> <li>: 계몽 전제 군주 자처, 귀족의 면세 특권 폐지와 농노 해방 등 내정 개혁 시도</li> <li>프란츠 요제프 1세(재위 1848~1916)</li> <li>: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수립(㉑□□□□□)</li> </ul>   |
| <b>러시아</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⑳□□□□ 대제(재위 1682~1725)</li> <li>: 서유럽화 정책 추진, ㉒□□□□□□□□를 건설하여 수도로 삼음(1703~1713)</li> <li>: 청과 ㉓□□□□□□ 조약 체결(1689), 스웨덴과의 북방 전쟁(1700~1721)에서 승리 → 발트해 진출</li> <li>예카테리나 2세(재위 1762~1796, '황후에서 황제로')</li> <li>: 계몽 전제 군주로 자처하며 내정 개혁 추진, 프로이센·오스트리아와 함께 ㉔□□□□ 분할 점령</li> </ul> |

# IV 4 시민 혁명과 산업 혁명

## 1 과학 혁명

### 01. 배경과 의미

|           |  |
|-----------|--|
| <b>배경</b> | • 이슬람 과학의 영향, 르네상스 시대의 학문 발전, 정확한 관찰과 실험을 위한 도구(현미경 등) 발명<br>→ 과학적 사고방식 발달 |
| <b>의미</b> | • 16~17세기에 걸쳐 일어난 과학의 발전과 이로 인한 세계관의 변화                                    |

### 02. 천문학 및 물리학의 발전

|               |   |
|---------------|---|
| <b>코페르니쿠스</b> | •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1543)에서 ①□□□ 주장 → 기존의 천동설 비판  |
| <b>케플러</b>    | • 행성이 태양 주위를 타원형의 궤도로 운행함을 밝힘(①□□□ 수정·발전)   |
| <b>갈릴레이</b>   | •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여 ①□□□ 입증  |
| ②□□           | • '만유인력의 법칙' 발견, 천체의 운동을 수학 공식으로 나타냄 → 기계론적 우주관 확립<br>•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프린키피아, 1687) |

### ● 지동설의 확산과 루터파

- 하늘, 태양, 달 대신에 지구가 움직이고 있음을 입증하려는 새로운 점성가(코페르니쿠스)의 등장에 관해 나의 스승 루터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 그의 주장은 마차나 배를 타고 이동하는 자가 마치 땅과 나무가 움직이는 동안 자신은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나의 생각으로는 이 점성가가 나타나 천문학 이론 전체를 뒤집어 엎으려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성서』에도 기록되었듯이 여호수아는 이 땅이 아니라 태양을 향해 멈추라고 명하지 않았던가.  
- 안톤 라우터바흐, 『일기』 -
- 루터파 제후인 알브레히트 공작은 비텐베르크의 학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종교적 신념과 과학적 신념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는 합리적 신념에 따라 코페르니쿠스 이론을 옹호하는 가장 중요한 '지지자'로 추앙받았으며, 새로운 이론을 따르는 학자들이 『성서』의 해석에 어긋나는 헛된 주장을 퍼뜨린다는 혐의로 교황청에 기소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다.  
- 웨스트먼, 「멜란히톤 학파, 레티쿠스, 코페르니쿠스 이론에 대한 비텐베르크의 해석」 -

### 03. 의학

|           |  |
|-----------|--|
| <b>하비</b> | • 혈액 순환론 연구, 과학 혁명 본격화, 『심장과 피의 운동에 대하여』(1628)<br>: 혈액 순환의 중심부인 심장을 왕관에 비유 → 청교도 혁명 당시 찰스 1세를 보좌하며 절대왕정 옹호 |
|-----------|--|

## 2 근대 철학과 사상의 발전

### 01. 근대 철학

|                  |                                      |
|------------------|--------------------------------------|
| <b>근대 철학의 발전</b> | • 과학 혁명의 영향으로 과학적 사고방식 확산, 정치 이론에 영향 |
|------------------|--------------------------------------|

### 02. ③□□ □□□의 확산

|           |  |
|-----------|--|
| <b>배경</b> | • 과학 혁명의 영향으로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법칙의 존재에 대한 믿음 확산                                 |
| <b>의미</b> | • 자연 상태에 살던 개인들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합의나 계약을 맺어 국가와 사회가 등장하였다고 주장 → 자연법사상을 토대로 확산 |

|              |  |
|--------------|--|
| <b>대표 인물</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홉스(1588~1679)<br/>: 인간이 혼란한 자연 상태를 벗어나려고 상호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 절대왕정 옹호</li> <li>• 로크(1632~1704)<br/>: 상호 계약으로 수립된 정부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국민은 정부에 저항할 수 있다고 주장(4□□□)<br/>→ 영국의 명예혁명 정당화, 미국과 프랑스의 시민 혁명에 영향</li> <li>• 루소(1712~1778)<br/>: 5□□ □□(공공의 선과 이익을 전제로 국가 등이 갖는 보편적 의지)의 형성 주장</li> </ul> |
|--------------|--|

### 03. 계몽사상

|               |   |
|---------------|---|
| <b>배경</b>     | • 16~17세기 과학 혁명의 성과와 사회 계약설의 등장   |
| <b>내용</b>     | • 이성 중시, 미신과 무지 배격, 불합리한 제도와 낡은 관습 타파를 통해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고 믿음<br>→ 18세기 유럽 전역에 확산  |
| <b>대표 사상가</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볼테르 : 관용의 원리, 신앙과 언론의 자유 강조</li> <li>• 6□□□□□ : 입법·사법·행정의 삼권 분립 주장(『법의 정신』, 1748)</li> <li>• 디드로, 달랑베르 등 : 7『□□□□』 편찬(1751~1772) → 계몽사상 확산에 공헌</li> <li>• 8□□ : 일반 의지 강조, 인민 주권의 원리 제시 → 프랑스 혁명에 영향</li> </ul> |

#### ● 사회 계약설과 계몽사상의 확산과 발전

- 로크는 절대 왕정을 옹호한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비판하고 국민의 저항권을 강조하는 등 자유주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특히 7년 전쟁 이후 영국의 과세 조치에 대한 저항이 조직화되면서 로크의 『시민 정부론』(1689·1690)은 큰 주목을 받았다. 로크의 책이 북아메리카에서 본격적으로 인쇄된 것은 바로 보스턴 차 사건(1773) 무렵이었다. 자유와 사회 계약설에 관한 로크의 주장은 미국 독립 전쟁 당시 제퍼슨 등 주요 인사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 『시민 정부론』의 일부 구절이 미국 독립 선언문에서 직접 인용되었다.
  - 웨버, 『서구의 정치 사상』 -
- 바스티유 함락 직후 『백과전서』는 정치 혁명을 성취한 위대한 저술로 칭송받았다. “『백과전서』는 이성과 통합된 지식이 인간의 의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신념을 논증하였고, 장차 프랑스 혁명이 다루어야 할 사회적 쟁점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이 책의 집필에 참여한 지식인들은 일반 시민도 국왕, 성직자 등과 동일한 활동을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삼부회에서 대표성의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백과전서』는 새로운 권력 공간을 창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구시대의 낡은 가치를 해체하는 데 일조하였다.”
  - 도네이토, 『백과전서와 혁명의 시대』 -
- 공화주의 전통을 계승한 루소의 일반 의지 이론은 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연 상태의 원초적인 평등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기준이다. 일반 의지를 형성하는 데, (법 앞의) 평등만이 사회적 안정과 정치적 구원을 보장할 수 있다. 평등이라는 최고의 기준이 없다면, 일반 의지는 사실상 무의미할 것이다.” …… 특히 프랑스 혁명 당시 자코뱅파는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토지 재분배 등 급진적 개혁을 부르짖을 때마다 루소의 주장과 문구를 인용하곤 하였다.
  - 이즈리얼, 『급진적 계몽사상』 -

### 04. 17·18세기 유럽의 문화

|           |  |
|-----------|--|
| <b>건축</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세기 : 바로크 양식(공간감과 장식성 강조), 9□□□□ 궁전(1682)</li> <li>• 18세기 : 로코코 양식(섬세하고 우아한 미를 추구), 10□□□ 궁전(‘근심 없는 궁’, 1747)</li> </u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
| <b>학문</b> | • 11□□ □□□가 『국부론』(1776)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주장 → 고전 경제학의 토대 마련  |

### 3 영국 혁명

#### 01. 혁명 전의 영국 사회

|           |  |
|-----------|--|
| <b>변화</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주층인 젠트리(gentry)와 도시 시민 계급 성장, ①□□□의 의회 진출</li> <li>• 제임스 1세(재위 1603~1625)의 전제 정치<br/>: 스튜어트 왕조 개창, 왕권신수설을 고수하며 전제 정치 확대, 국교회 강화와 청교도 박해</li> </ul> |
|-----------|--|

#### 02. 청교도 혁명(1642~1649)

|                 |   |
|-----------------|---|
| <b>배경</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②□□ 1세(재위 1625~1649)<br/>: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하고 청교도 박해 → 의회가 ③□□□□ 제출(1628) → 국왕은 승인 후 의회 해산(1629) → 스코틀랜드와의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해 의회 소집(1640)</li> </ul> |
| <b>전개</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 소집된 의회가 국왕의 과세 요구 거부 → ②□□ 1세의 의회 무력 탄압 →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 내전 발생(1642) → ④□□□이 이끄는 의회파 승리 → ②□□ 1세 처형 → ⑤□□□ 수립(1649)</li> </ul>            |
| <b>④□□□의 통치</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⑥□□□□ 원정(1649), 스코틀랜드 원정(1650)</li> <li>• ⑦□□□ 제정(네덜란드 견제 목적, 1651)</li> <li>• ⑧□□□ 취임(1653) : 청교도 윤리를 앞세운 금욕적 독재 정치 실시</li> </ul>         |
| <b>왕정복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④□□□의 사망(1658) 이후 왕정복고를 통해 ⑨□□ 2세 즉위(1660)</li> </ul>  |

재판이 시작되자 ②□□ 1세는 변론을 거부하며, “짐보다 높은 법적 권위란 것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왕권은 신성한 것이므로 짐은 오직 신 앞에서만 책임을 질 뿐 군주의 행위를 심판할 법적 기구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변하였다. 이에 맞서 의회는 “잉글랜드의 군주는 독자적인 통치자가 아니라, 국법을 준수하며 통치해야만 하는 제한된 권한을 부여받은 직위이다.”라고 반박하였다. 곧이어 법정은 ②□□ 1세를 내보내고 궤석(闕席)으로 재판을 계속한 끝에 사형을 선고하였다.

- 로버트슨, 『폭군 살해 개요』 -

#### 03. 명예혁명(1688~1689)

|           |  |
|-----------|--|
| <b>배경</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⑨□□ 2세(재위 1660~1685)<br/>: 가톨릭교도 우대 정책, 전제 정치 → 의회는 ⑩□□□(1673), 인신보호법(1679) 제정</li> <li>• ⑪□□□ 2세(재위 1685~1688)<br/>: ⑩□□□, 인신보호법 무시</li> </ul> |
| <b>전개</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의 ⑪□□□ 2세 폐위 → ⑪□□□ 2세의 딸인 메리 공주와 그녀의 남편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메리 2세(재위 1689~1694), 윌리엄 3세(재위 1689~1702)]</li> <li>• ⑫□□□□ 승인(1689)</li> </ul>        |
| <b>결과</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 중심의 ⑬□□ □□□ 토대 마련</li> </ul>   |

“지금 윌리엄 공이 수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더블린으로 오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격퇴할 수 있다는 한 가닥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출정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패배한다면, 우리는 상실한 영토를 지키기 위해 우리 군의 모든 것을 거는 무모한 모험은 하지 않을 것이다.” 연설을 마친 티르코넬 백작은 기병대를 독려하며 적군과 격전을 벌였지만 수세에 몰렸다. 결국 그는 ⑪□□□ 2세에게 “루이 14세의 궁정으로 속히 피신하셔야 합니다.”라고 아뢰었다.

- 맥과이어, 『아일랜드인들의 전기 사전』 -

#### 04. 혁명 이후 영국의 발전

|              |   |
|--------------|---|
| <b>정치 변화</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앤 여왕(재위 1702~1714)<br/>: 스코틀랜드를 병합하여 연합 왕국 수립(⑭□□□□)</li> <li>• 조지 1세(재위 1714~1727)<br/>: 독일 지역의 하노버가 출신 → 하노버 왕조 개창<br/>: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전통 아래 ⑮□□ □□□ 시행</li> </ul> |
|--------------|---|

# IV 4 시민 혁명과 산업 혁명

## 4 미국 혁명

### 01. 17~18세기의 북아메리카

|         |                               |
|---------|-------------------------------|
| 17세기    | • 종교의 자유, 경제적 기회를 찾아 영국인들이 이주 |
| 18세기 전반 | • 동부 해안에 13개의 영국 식민지 건설       |

### 02. 혁명의 배경

|                 |   |
|-----------------|---|
| 영국의<br>1□□□□ 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 전쟁(1756~1763)으로 재정난 심화</li> <li>• 식민지에 인지세법(조지 3세, 1765) 등을 통해 각종 세금 부과</li> </ul>   |
| 식민지의 저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 거부 운동 전개("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li> <li>→ 3□□□ □ □□(1773) → 영국 정부의 강경 조치(보스턴 항구 폐쇄)</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ue; padding: 5px; margin-top: 5px;"> <p>영국 정부는 북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차(茶)법을 제정하는 등 4□□□ □□에 각종 특혜를 부여해 주었다. 이에 분노한 식민지인들이 보스턴 항구에 정박 중이던 4□□□ □□의 배를 습격하여 차 상자들을 바다에 버렸다.</p> </div> |

### 03. 혁명의 전개

|                         |   |
|-------------------------|---|
| 제1차 대륙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라델피아에서 식민지 대표들이 영국의 탄압 조치 철회 요구(1774)</li> <li>: 영국의 입법권 부정, 영국 상품 불매 등을 결의하는 선언문 발표</li> </ul> |
| 5□□□ 전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의 무력 충돌(1775) → 독립 전쟁 발발</li> </ul>  |
| 제2차 대륙회의<br>(1775~178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li> <li>• 6□□ □□□(1776. 7. 4.) 발표 : 천부 인권, 주권 재민, 저항권 천명</li> </ul>              |
| 독립 전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반 열세 → 7□□□, 에스파냐 등의 지원 → 8□□□□ 전투(1781) 승리 → 파리 조약(9□□□□)으로 식민지의 독립을 인정받음</li> </ul>           |

### 04. 미합중국의 탄생(1789)

|       |                                   |
|-------|-----------------------------------|
| 헌법 제정 | • 연방주의, 삼권 분립에 기초한 연방 헌법 제정(1787) |
| 정부 수립 | • 10□□□을 초대 대통령(1789~1797)으로 선출   |
| 의의    | • 프랑스 혁명에 영향                      |

#### ● 미국 혁명의 전개 과정

• 자유의 아들들이 동인도 회사 선박의 차 상자들을 폐기하자, 본국 정부는 강경 대응을 공언하였다. 이에 우리는 급히 의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거듭 논의하였다. 이 와중에 런던의 의회에서 보스턴 항구 폐쇄를 골자로 한 폭압적 법안이 결의되었다는 비보를 접하였다. 일순간 우리 모두는 전기에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큰 충격에 빠져 꼼짝할 수도 없었다. 결국 우리는 본국의 만행과 횡포를 규탄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결의하였다.

- 레이드, 『미국 혁명의 헌정사』 -

• 대륙 회의에서 대의원에 선출된 리처드 헨리 리는 독립을 공식 천명하는 '리 결의안'을 대륙 회의에 제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3개 식민지의 연합체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이며, 마땅히 그렇게 될 권리를 보유한다. 이 연합체는 영국 왕실에 대한 모든 충성 의무로부터 해방되어 있다. 이제 13개 식민지와 영국의 모든 정치적 관계는 완전히 해소되었으며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에 일부 비판론자들은 독립 선언이 아직 시기상조이며 외국의 원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결의안이 대륙 회의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자, 제퍼슨은 이를 토대로 독립 선언문을 작성하였다.

- 마이어, 『미국의 성서 : 독립 선언문 만들기』 -

## 5 프랑스 혁명

### 01. 혁명의 배경

|                 |   |
|-----------------|---|
| <b>구제도의 모순</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직자, 귀족 : 제1, 제2 신분으로 정치적·경제적 특권을 누림</li> <li>평민 : 제3 신분, 인구의 절대다수 차지, 과중한 세금 부담, 정치에서 소외</li> </ul> |
| <b>시민 계급 성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로 상공업에 종사하며 부를 축적, 1789년 수용</li> </ul>  |
| <b>정부 재정 위기</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잡은 전쟁, 미국 혁명에 대한 군사 지원</li> </ul>  |

### 02. 혁명의 전개(1789~1792)

|                  |   |
|------------------|---|
| <b>발발</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89년 7월(재위 1774~1792)</li> <li>재정 위기 해결을 위해 1789년 소집 → 표결 방식을 둘러싼 각 신분 대표들 간의 대립(제1 신분과 제2 신분은 신분별 표결, 제3 신분은 머릿수 표결 주장) → 제3 신분 대표들의 1789년 8월 구성, '테니스코트의 서약' → 국왕의 1789년 9월 탄압</li> <li>1789년 8월을 구성한 제3 신분 의원 등은 테니스코트에 모여 "우리는 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결코 해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라고 결의하였다.</li> </ul> |
| <b>파리 민중의 봉기</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89년 7월 함락(1789. 7월) → 혁명의 확산과 농민 봉기</li> </ul>   |
| 1789년 8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봉건제 폐지 선언(8월 법령)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1789년 8월)」 발표 → 국왕의 국외 탈출 시도 실패(바렌 도주 사건, 1791. 6월) → 1791년 헌법 제정(1791년 9월, 재산에 따른 제한 선거제) → 1789년 10월 해산, 1789년 10월 소집(1791. 10월)</li> </ul>  |
| 1789년 10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89년 10월과 1789년 10월의 군사적 위협 → 1789년 10월에 선전 포고, 혁명전쟁 발발</li> </ul>  |

• 재무 총감 네케르의 해임 소식이 7월 12일 오후 파리에 전해지자, 시민들은 이 조치를 보수 세력의 쿠데타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간주하였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마르스 광장 등지로 집결하는 왕실 군대가 베르사유 궁전에서 회의 중인 국민 의회를 해산하려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력 언론인인 데몰랭은 연단에 올라 격정적 연설을 이어갔다. "여러분,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네케르의 해임은 사실상 애국자들을 향한 대학살을 알리는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종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밤 국왕의 지시를 받은 군 병력이 시민들을 모두 학살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방법은 단 하나, 바로 무기를 드는 것입니다."

- 미네, 『프랑스 혁명의 역사』 -

• 바스티유 함락 이틀 후, 파리 주재 영국 외교관이 본국 외무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혁명이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희생된 사상자들도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순간부터 프랑스는 자유로운 국가로 되었고, 국왕은 제한적인 군주로, 귀족은 다른 시민들과 사실상 동일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엘저, 『프랑스 혁명 속 영국인들』 -

### 03. 혁명의 급진화

|                          |   |
|--------------------------|---|
| 1789년 8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혁명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식량 부족 → 상켈로트 등 파리 민중의 툴리 왕궁 습격 → 왕권 정치 → 1789년 8월의 1789년 8월 퇴위 공표(1792. 8월)</li> </ul>  |
| 1792~179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화정 선포(제1 공화정) → 1793년 1월 처형(1793. 1월) → 온건파인 지롱드파를 누르고 급진파인 자코뱅파가 권력 장악</li> <li>혁명 재판소 설치(1793. 3월 10일), 공안 위원회 설치(1793. 4월 6일)</li> <li>자코뱅 헌법 제정(공화제·보통 선거제 등 규정, 1793. 8월 19일)</li> </ul> |
| 1793년 8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93년 8월 주도 → 혁명 재판소와 공안 위원회를 통해 반혁명 세력 제거</li> </ul>  |
| 1793년 10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93년 10월에 대한 반발, 1793년 10월 처형 → 1795년 헌법 제정</li> </ul>  |
| <b>총재 정부 (1795~1799)</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명의 총재가 주도 → 재정난 극복을 위해 대외 정복 전쟁 지속</li> <li>1796년의 이탈리아(1796), 1797년 원정(탐루크 군대와 엠바베 전투, 1798)</li> <li>1799년의 쿠데타(1799)로 붕괴</li> </ul>  |

25□□□□은 총재 정부에 “26□□□□ 정복 즉시 나는 인도 각지의 군주들과도 동맹을 맺어 27□□□□의 점령지를 공격할 것이다.”라고 공언하였다. 그의 정치적 조연자이자 총재 정부의 외무 장관인 탈레랑도 그의 주장을 옹호하며 “28□□□□를 점령하여 지배권을 강화한 이후 우리는 수에즈에서 인도로 15,000명의 병력을 보내 술탄의 부대와 결탁하여 29□□□□군을 축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하였다. 29□□□□을 견제하기 위한 그의 구상은 통령 정부 수립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 이라즈 아미니, 『나폴레옹과 페르시아』 -

04. 혁명의 의의와 영향

|           |  |
|-----------|--|
| <b>의의</b> | • 봉건적 신분제를 타파한 전형적인 시민 혁명 → 시민 사회의 토대 마련 |
| <b>영향</b> | • 자유, 평등, 우애의 정신 확산 →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        |

6 25 □□□□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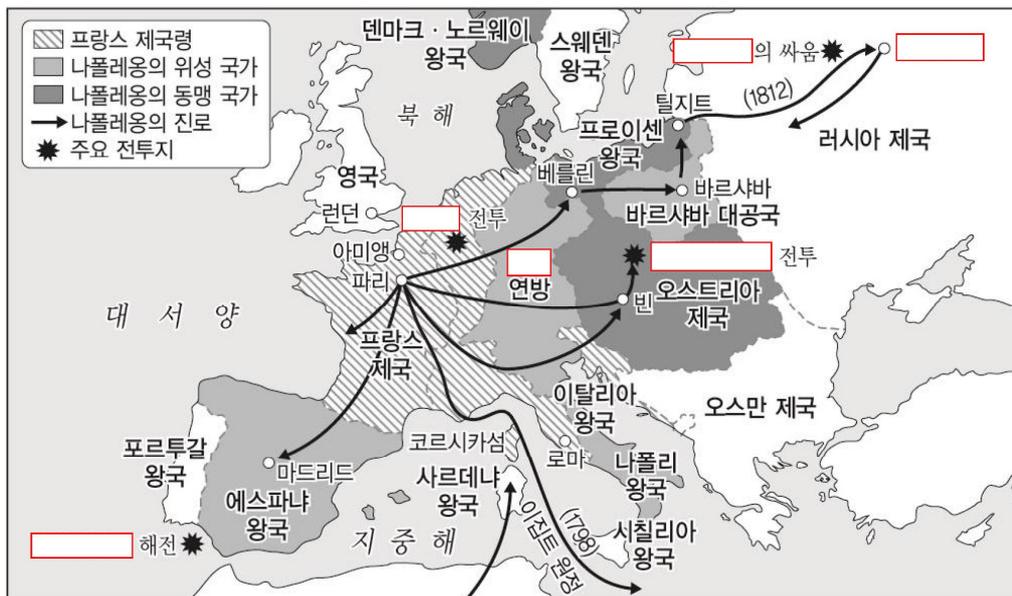
01. 26 □□ □□(1799~1804)

|              |  |
|--------------|--|
| <b>집권</b>    | • 브뤼메르 18일의 쿠데타로 권력 장악(1799)                         |
| <b>대외 정책</b> | • 27□□□□□□ 격파(마렝고 전투), 영국과 휴전 → 대프랑스 동맹 와해(1802)     |
| <b>내정 개혁</b> | • 프랑스 은행 설립(1800), 국민 교육 제도 정비, 28『□□□□ □□』 편찬(1804) |

02. 29 □□ □□(1804~1815)

|                  |   |
|------------------|---|
| <b>성립</b>        | • 국민 투표를 통해 황제 즉위(노트르담 대성당, 1804)   |
| <b>유럽 제패</b>     | •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30□□□□에 패배(1805)<br>• 오스트리아-러시아 등에 승리(아우스터리츠 전투, 1805)<br>• 31□□ □□ □□ 해체(1806) → 라인 동맹 결성         |
| 32□□ □□□□        | • 30□□□□과의 통상 금지(1806) → 33□□□□가 이를 지키지 않고 30□□□□과 통상   |
| 33□□□□ <b>원정</b> | • 보로디노 전투(1812. 9월) → 모스크바를 점령하였으나 34□□□□의 후퇴 전술, 기습 등으로 패배   |
| <b>몰락 과정</b>     | • 대프랑스 동맹군과의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패배(1813) → 폰텐블로 조약에 따라 황제직 퇴위(1814)<br>• 엘바섬 유배(1814) → 탈출 → 재집권 → 35□□□□ 전투에서 패배(1815) |

36 37 □□□□ 시대의 유럽



03. 유럽 정복 전쟁의 영향

|                 |                                      |
|-----------------|--------------------------------------|
| <b>혁명 이념 전파</b> | • 자유주의 이념의 확산 → 구체제에 대한 저항           |
| <b>민족주의 확산</b>  | • 프랑스의 침략에 대한 저항 의식 → 유럽 각국의 민족주의 고양 |

# IV 4 시민 혁명과 산업 혁명

1 1 □ 체제와 자유주의의 확산

01. 1 □ 회의(1814~1815)

|              |   |
|--------------|---|
| <b>목적</b>    | • 나폴레옹 전쟁의 전후 처리와 유럽의 질서 회복   |
| <b>참가국</b>   | • 오스트리아의 2 □ □ □ □ 주도로 오스트리아, 영국, 프로이센, 러시아, 프랑스 등 유럽 각국 대표단이 참가                                  |
| <b>기본 원칙</b> | • 유럽 각국의 지배권과 영토를 3 □ □ □ □ □ 이전으로 되돌리려 함(정통주의, 복고주의)<br>• 4 □ □ 동맹·4국 동맹 등 결성 →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 탄압 |

- 러시아는 바르샤바 대공국 대부분을 차지한다.
- 5 □ □ □ □ 은 작센 지방 영토 5분의 3을 차지하며, 바르샤바 대공국의 일부(포젠 대공국), 단치히, 라인란트 등지를 얻는다.
- 옛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국을 정리하여 38개의 영방 국가를 모아 독일 연방을 창설한다. 연방의 의장은 6 □ □ □ □ 황제가 맡는다.

02. 각국의 자유주의·민족주의 운동

|                |   |
|----------------|---|
| <b>독일 지역</b>   | • 학생 조합(부르셴샤프트)의 활동(1815)   |
| 7 □ □ □        | • 8 □ □ □ 제국에 맞서 독립운동 전개(1821~1829) → 러시아, 영국, 프랑스 정부와 유럽 지식인들의 지원으로 독립 |
| 9 □ □ □        | • 데카브리스트의 봉기(12월의 당원, 입헌 군주제 요구, 1825)                                  |
| <b>이탈리아</b>    | • 1 □ □ □ □ □ (단) 조직(민족 통일, 자유주의 개혁 지향, 1806)                           |
| <b>라틴 아메리카</b> | • 1 □ □ □ □ 의 지배에 맞서 독립운동 전개, 미국의 지지(2 □ □ □ □, 1823)                   |

2 □ □ 대통령이 밝힌 외교 방침으로, 미국의 유럽에 대한 불간섭 원칙, 유럽의 아메리카에 대한 불간섭 원칙 등을 천명하였다. 2 □ □ □ □ □ 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 선언을 비판하였다.

2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

01. 3 □ □ 혁명(1830)

|           |  |
|-----------|--|
| <b>배경</b> | • 나폴레옹 몰락 이후 부르봉 왕조 부활[루이 18세(재위 1815~1824)]<br>• 4 □ □ □ □ (재위 1824~1830)의 보수적 전제 정치<br>: 강경 왕당파 인사를 수상에 임명<br>: 7월 칙령(5 □ □ □ □ 제한, 언론 자유 억압, 의회 해산) |
| <b>전개</b> | • 자유주의자 등 파리 시민의 봉기 → 6 □ □ □ □ 추방(부르봉 왕조 붕괴)  |
| <b>결과</b> | • 6 □ □ □ □ □ 를 국왕으로 추대하여('시민 왕') 입헌 군주제 수립(7 □ □ □ □ □)<br>• 1814년 헌법 개정(법 앞에 평등·언론 검열 폐지·삼색기 재도입 등, 1830. 8월)  |
| <b>영향</b> | • 7 □ □ □ □ 독립(from 네덜란드 연합 왕국), 유럽 각지의 자유주의 운동 자극   |

02. 1848년 혁명(1848)

|           |   |
|-----------|---|
| <b>배경</b> | • 산업화로 노동자 계층 성장, 부유한 소수의 시민에게만 1848년 부여                                    |
| <b>전개</b> | • 중하층 시민과 노동자가 1848년 확대를 요구하며 봉기  |
| <b>결과</b> | • 1848년 2월 봉기 → 2월 26일 수립 → 2월 26일 1848년 대통령이 선출                            |
| <b>영향</b> | • 오스트리아에서 혁명 발생(2월 1848년 실각 → 1월 체제 붕괴)<br>• 프로이센 등 유럽 각지에서 자유주의·민족주의 운동 전개 |

1848년 2월 26일이 영국으로 망명한 직후 2월 26일은 임시 정부에 다음과 같은 서한을 발송하였다. “파리 시민들의 영웅적인 행위로 외세 침략의 마지막 가능성마저 무너졌습니다. 저는 공화정의 깃발을 품고 파리로 돌아왔으며, 조국을 위해 온전히 복무하겠다는 열망 이외에는 어떠한 정치적 야심도 없습니다. 저의 이런 각오를 임시 정부의 각료들에게 알려드리며, 장차 구성될 새로운 정부의 대의명분을 위해서도 헌신할 것임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 마크래, 『나폴레옹 3세의 생애』 -

03. 프랑스의 정치적 변화

|                           |  |
|---------------------------|--|
| <b>22년 2월 (1852~1870)</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월 26일 1848년의 황제 즉위(나폴레옹 3세)<b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오늘 20여만 명이나 되는 리옹 시민들께서 나폴레옹의 기마상 제막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찍이 그의 통령 취임에 경의를 표하였고, 제1 제정의 수립에 환호하였으며, 엘바섬에서 탈출한 그가 귀환했을 때 제일 먼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 또한 자유로운 국민 투표를 통해 저를 나폴레옹의 후계자로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연유로 제가 리옹으로 오는 동안 각지에서 “황제 폐하 만세!”라는 만장일치의 환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이제 조국을 위해 복무하는 충복으로서, 위대한 프랑스의 재건과 번영을 위해 헌신할 것임을 맹세하는 바입니다.<br/>- 나폴레옹 3세, 「9월 20일 리옹 연설」 -</p> </div> </li> <li>• 1848년 프랑스 전쟁에서 패배 → 2월 26일 1848년 봉기 → 제3 공화국 수립</li> </ul> |
| <b>24년 2월 (1871)</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이센에 항복한 정부에 맞서 파리 시민과 노동자들이 봉기하여 자치 정부 수립</li> <li>• 독일 제국의 지원으로 프랑스 정부군이 무력으로 진압</li> </ul>  |

3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

|                   |   |
|-------------------|---|
| <b>특징</b>         | • 1832년이 주도하여 점진적으로 추진  |
| <b>종교적 차별 폐지</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28년 폐지(1828) : 비국교도에게 공직 허용</li> <li>• 가톨릭 해방법 제정(1829) : 가톨릭교도에 대한 차별 대부분 철폐</li> </ul>   |
| <b>선거법 개정</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선거법 개정(1832년)</li> <li>• : 1832년 2월 폐지, 도시의 상공업자에게 선거권 부여, 1832년은 선거권 제외</li> <li>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제1차 선거법 개정으로 대부분의 1832년 2월 폐지되었다. 귀족이 통제하던 선거구들이 현저히 감소하면서 하원의 위상은 강화되었다. 몇몇 귀족은 “장차 정부가 임의로 특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상원 의원들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려하였다. 웰링턴 공작도 “1832년 선거법 개정으로 상원이 주도하던 헌법 질서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 상원의 독자적인 심의 권한과 대상은 결국 종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탄하였다.<br/>- 메이, 『영국 헌정사』 -</p> </div> </li> <li>• 1832년 운동<br/>: 노동자 계층이 보통 선거와 비밀 투표 등을 요구하는 1832년 발표(1838), 선거법 추가 개정 요구</li> </ul> |
| <b>자유주의 경제 개혁</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46년 폐지(1846), 1849년 폐지(1849) → 자유주의 경제 체제 확립</li> <li>• 산업화의 과정에서 전 세계로 세력을 팽창하며 제국 건설</li> </ul>  |

# IV 4 시민 혁명과 산업 혁명

## 4 민족주의의 확산과 국민 국가의 발전

### 01. 이탈리아의 통일

|                 |   |
|-----------------|---|
| <b>통일 전의 상황</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왕국과 교황령 등으로 분열</li> <li>• 프랑스 자유주의 혁명의 영향을 받은 ①□□□가 청년 이탈리아당의 혁명 운동 전개(1831~) → 실패</li> </ul>                                   |
| <b>사르데냐 왕국</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재위 1849~1861~1878) 주도</li> <li>• 재상 카보우르(1810~1861)가 ②□□□□ □□의 지원으로 ③□□□□□와 전쟁에서 승리 → 이탈리아 중·북부 지역의 통합</li> </ul> |
| <b>왕국의 수립</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④□□□□(1807~1882)가 의용군을 이끌고 이탈리아 남부 원정 → 시칠리아와 나폴리 등지를 점령 → ⑤□□□□ □□에 헌납 → 이탈리아 왕국 수립(1861)</li> </ul>                              |
| <b>왕국의 발전</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⑥□□ □□ 병합(1866), 로마 교황령 점령(1870)</li> </ul>  |

### 02. 독일의 통일

|                    |  |
|--------------------|--|
| <b>통일 전 상황</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5개의 영방 국가, 4개의 자유시로 분열</li> <li>• ⑦□ 체제(1815~1848)에 따라 독일 연방 창설</li> </ul>   |
| <b>통일의 움직임</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이센 주도의 ⑧□□ □□ 체결(1834) → 독일 지역의 경제적 통합 추구</li> <li>• 프랑스 ⑨□□ 혁명의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자들 중심으로 통일 방안 논의 : ⑩□□□□□□ 국민 의회(1848~1849) → 합의 실패</li> </ul>  |
| <b>프로이센 중심의 통일</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상 ⑪□□□□□□(1815~1898)의 철혈 정책 → 군비 증강</li> <li>• 프로이센·⑫□□□□□□ 전쟁(1866) 승리 → 북독일 연방 결성(1867)</li> <li>• 프로이센·⑬□□□□□□ 전쟁 승리 → ⑭□□□□·□□ 지방 획득, 빌헬름 1세(1861~1871~1888)가 독일 제국 황제로 즉위(베르사유 궁전, 1871)</li> </ul> |

• 6월경 시칠리아를 방문한 미국 작가 헨리 애덤스는 가리발디를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한 생생한 기록을 남겼다. “가리발디는 자신이 시칠리아의 지배자가 되었음을 사르데냐 왕국 국왕의 이름으로 선포하였다. 곧이어 그는 붉은 셔츠단을 이끌고 팔레르모로 진격하여 공격을 감행하였고, 수많은 주민이 그를 열렬히 지지하며 봉기하였다. …… 결국 팔레르모 장악 이전에 새로운 부대가 충원되자, 나폴리 왕국의 군대와 군함은 모두 항복하거나 철수하였다.”

- 레벤슨, 『헨리 애덤스의 서한들』 -

• 나폴레옹 3세의 퇴위 이후 공화정의 행정 수반이 된 티에르는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착수하였다. 그는 “군사적 요충지인 벨포르를 결코 양도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였다. 이에 비스마르크는 “휴전 협정이 체결되면 독일 제국의 군대가 상젤리제 거리에서 승전 축하 시가 행진을 벌이고, 정식 조약이 비준될 때까지 파리 근교에 주둔한다.”라는 조건으로 벨포르를 양보하였다. 티에르는 의회에 “그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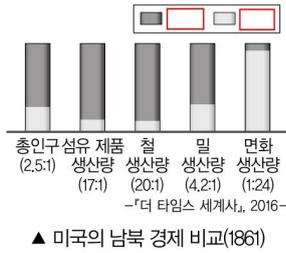
- 카스트리, 『티에르』 -



▲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

### 03. 미국의 발전

|                 |  |
|-----------------|--|
| <b>영토 확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 후 서부 개척 등으로 19세기 중엽 태평양 연안까지 도달</li> </ul>   |
| <b>남북 전쟁</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경 : 영토 확장과 산업화 과정에서 북부와 남부 사이의 경제적 차이와 대립 심화</li> <li>• 전개 : ⑮□□의 대통령 당선(1860) → 남부 여러 주의 연방 탈퇴 → 남북 전쟁 발발(⑯□□□□년) → 노예 해방 선언(⑰□□□□년) → 게티즈버그 전투(1863) → 북부의 승리(1865)</li> </ul> |
| <b>전쟁 이후 발전</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쟁 이후 발전 : 국민적 단합을 도모하며 산업화 정책을 추진, 대륙 횡단 철도 개통(1869)</li> </ul>  |



이 그림은 남북 전쟁의 대결 구도를 잘 보여 준다. 곧 부러질 듯한 나뭇가지(연방을 상징)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우측 인물(북부를 상징)이 좌측 인물(남부를 상징)과 절벽 끄트머리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

▲ 남북 전쟁 풍자화

#### 04. 러시아의 발전

|                  |  |
|------------------|--|
| <b>19세기의 상황</b>  | • 차르의 전제 정치와 농노제 지속  |
| <b>데카브리스트의 난</b> | •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청년 장교와 일부 지식인('12월 당원')이 입헌 군주제를 지향하며 봉기(1825) → 니콜라이 1세(재위 1825~1855)의 진압으로 실패                         |
| <b>남하 정책</b>     | • 유럽과 아시아로 영토 확장 추진<br>• 1813년 전쟁(↔ 오스만, 1853~1856)의 패전으로 흑해 방면으로의 남하 좌절   |
| <b>알렉산드르 2세</b>  | • 1861년 1월 19일(1861) 등 내정 개혁 단행  |
| <b>20세기 운동</b>   | • 지식인들이 농민 계몽을 통한 사회 개혁 운동 주도('20세기 운동'은 '민중 속으로'라는 의미) → 실패 → 급진적 성향의 무정부주의자들이 알렉산드르 2세 암살(1881) → 알렉산드르 3세의 전제 정치 강화 |

#### ● 노예 해방 선언과 농노 해방령

-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 이후 프랑스의 여론은 연방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 프랑스는 러시아, 영국과 함께 남북 전쟁 종식을 위한 공동 중재안을 워싱턴에 제시하였다. 휴전 제안 배경으로 "남부 연합 주민들의 고통, 그리고 전쟁이 유럽 면화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악영향" 등이 언급되었다. 당시 나폴레옹 3세는 "6개월간 잠정적 휴전을 통해 남부 연합의 주요 항구를 즉각 개방해야 한다. 이로써 양측 간의 유혈 사태가 종식되고, 일체의 교전 행위도 재개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문명화된 세계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만일 북부가 우리 제안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남부 연합의 실체를 용인하고 내전에 개입할 정당한 명분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 캐롤, 『앙리 메르시에와 남북 전쟁』 -

- 러시아의 인텔리겐치아(지식인)는 크림 전쟁의 패배를 개혁과 근대화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대해 알렉산드르 2세의 동생 콘스탄티누스 대공은 이렇게 언급하였다. "패전으로 우리는 러시아가 다른 강대국보다 쇠약하고 빈곤하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더욱이 농노제 등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효율적 행정 운영에서 그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다는 점에 유의하여 각종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리벤, 『니콜라이 : 모든 러시아인들의 황제』 -

### 5 산업 혁명

#### 01. 산업 혁명의 배경

- 신항로 개척 이후 상업 혁명, 인구 증가 → 상품 수요의 급증 → 선대제, 매뉴팩처(공장제 수공업) 체제 등장

#### 02. 영국의 산업 혁명

|                 |  |
|-----------------|--|
| <b>배경</b>       | • 인구 증가와 식민지 쟁탈전 승리로 국내 시장과 광대한 해외 시장 확보<br>• 제2차 18세기 운동 이후 여러 도시에 풍부한 노동력 유입<br>• 새로운 공업 발전에 필요한 철과 석탄 등 지하자원 풍부 |
| <b>기술·동력 혁명</b> | • 면직 공업 발달 : 면직물 수요 증대 → 방직기와 방적기의 개량 → 기계화 촉진<br>• 제임스 와트의 2차 개량 : 면직업, 제철업 등에서 동력원으로 사용                          |
| <b>교통의 발달</b>   | • 1825년의 증기 기관차 '로켓 호' 개발(1829) → 리버풀~맨체스터 간 철도 개통(1830)   |

03. 산업 혁명의 확산과 결과

|           |  |
|-----------|--|
| <b>확산</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세기 전반(벨기에, 프랑스) → 19세기 후반(미국, 독일, 일본 등)</li> </ul>  |
| <b>결과</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 방식의 변화 : 4□□□ □□ 공업 발달</li> <li>통신의 발달 : 5□□(1791~1872)의 유선 전신 발명(1837) → 세계 최초의 전신 개통(1844)</li> <li>새로운 계급의 출현 : 산업 자본가(생산 수단 및 자본 소유), 임금 노동자 등장</li> <li>도시화와 도시 문제 발생 : 도시 수 및 도시 인구의 증가 → 주택, 위생 등 도시 문제 발생</li> <li>노동 문제 발생 : 저임금·장시간 노동, 아동·여성 노동 문제 등</li> </ul> |

04.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   |
|------------------|---|
| <b>리다이트 운동</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업, 노동 강도 증가, 임금 체불 등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6□□□□ 운동(1811~1817)</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피시벌 총리여, 셔우드의 용감한 아들들이 불의를 응징하기로 결의하였소. 우리는 의회가 노동자들의 곤궁함을 덜어주길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으나, 타협의 손길은 차단당했고 핍박받던 가련한 우리 고장에는 이제 한 줄기 희망의 빛조차 사라지고 말았소. 6□□□□를 사형으로 처벌하는 법안은 그저 경멸스러울 따름이오. …… 단 한 명의 노동자라도 희생된다면! 피에는 피로 맞설 것이오!</p> <p style="text-align: right;">- 러드 장군으로부터 -</p> </div> |
| <b>노동 운동의 등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 운동 : 노동자들이 참정권 등 정치적 권리 주장</li> <li>노동조합 결성 :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 개선 요구</li> </ul>  |
| <b>사회주의의 출현</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화로 인한 빈부 격차 심화와 열악한 노동 현실 → 자본주의의 문제점 비판, 평등 사회 주장</li> <li>8□□□, 생시몽, 오언 : 초기 사회주의자들, 경쟁 대신 협동을 강조하며 이상적인 공동체 구상</li> <li>마르크스, 엥겔스 : '과학적 사회주의' 주장(자본주의 체제 작동의 과학적 해명 시도)</li> </ul>   |
| <b>사회주의의 확산</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러시아 사회 민주 노동당(9□□□□년)] 등에서 사회주의 정당 출현</li> <li>19세기 후반 사회 민주주의 등장</li> <li>국제적인 노동 운동 전개 → 인터내셔널(International Working Men's Association) 결성(1864)</li> </ul>   |